

KIEP

오늘의 世界經濟

World Economy Update

제 02-38호 / 2002년 11월 13일 발간

韓·싱가포르 FTA: 경제적 효과 및 고려사항

작성자 : 세계지역연구센터 정인교 동서남아팀장

【ikcheong@kiep.go.kr, ☎ 3460-1208】

세계지역 연구센터 정재완 전문 연구원

【jwcheong@kiep.go.kr, ☎ 3460-1051】

主要內容

- 최근 우리 정부는 그동안 싱가포르가 제의해 왔던 양국간 FTA 검토를 정부차원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함.
 - 1999년 이후 싱가포르는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와의 FTA를 제의했으나 우리나라 는 칠레와의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음.
- 그러나 칠레이후 FTA 정책의 모멘텀 유지, FTA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 전환 및 다수 FTA 확보를 통한 FTA 추진정책의 대내외 과시 등을 위해 싱가포르 등 농업분야에 대한 우려가 적은 싱가포르와의 FTA를 검토하기로 함.
- 한·싱 FTA로 싱가포르의 대한국 서비스 및 투자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동남아 무역·투자 진출의 교두보로 싱가포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상품, 투자, 서비스 인력, 기술, 정보 등에 있어 교류확대와 선진 개방경험 습득이 가능함.

對外經濟政策研究院

I. 한-싱가포르 FTA에 대한 논의과정 및 우리 정부의 입장

1. 논의 과정

- 싱가포르는 일본과 FTA(EPA)를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와의 FTA 검토도 제의해 왔었음. 최초의 제안은 1999년 9월 3일 테오(Micheal Teo) 주한 싱가포르 대사가 외교통상부로 발송한 서한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1999년 9월 12일 오클랜드 APEC 정상회담 기간 동안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고속동 총리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양국간 FTA 추진을 제의하였고, 1999년 10월 22일 싱가포르 리콴유 선임장관이 김대중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양국간 FTA 체결을 다시 한번 제의하였음.
- 당시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과 양국간 FTA보다는 한-ASEAN FTA의 틀 내에서 장기적인 관계로 검토하자고 대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2. 한-싱가포르 FTA관련 정부의 입장

- 칠레 이후 FTA 정책의 모멘텀 유지, FTA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 전환 및 다수 FTA 확보를 통한 FTA 추진정책의 대내외 과시 등을 위해 싱가포르 등 농업분야에 대한 우려가 적은 국가와의 FTA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다만, 양국간 FTA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 양국의 산·관·학 전문가그룹(관련부처 공무원, 학계, 업계대표로 구성)을 결성, 1년 정도의 기간내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 전문가그룹의 검토결과 및 국내 연구진의 연구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정부간 협상단계로 발전시킨다는 입장임.

- 시드니 WTO 각료회의(11.14-15) 참가시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측에 산·관·학 공동연구회 구성을 제의하고, 후속 실무협의를 통해 년말까지 공동연구회 구성 할 계획임.

II. 한·싱가포르의 경제협력 구조

- 싱가포르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우리나라의 13~14위 교역대상국이었으나, 1998년 이후 우리의 10대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으며,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01년 현재 수출의 경우 6대, 수입의 경우 11대 시장임.

<표 1> 韓國의 對싱가포르 교역추이

(단위: 십억 달러,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1~7)
수 출 (증가율)	6.69 (61.1)	6.44 (-3.8)	5.80 (-10.0)	4.06 (-29.9)	4.92 (21.1)	5.65 (14.8)	4.08 (-27.8)	2.39 (-4.8)
수 입 (증가율)	2.17 (30.6)	2.53 (16.6)	2.42 (-4.4)	1.71 (-29.4)	2.31 (35.0)	3.72 (61.1)	3.01 (-19.1)	1.88 (10.7)
총 교 역	8.86	8.97	8.21	5.77	7.23	9.37	7.09	4.27
무역수지	4.52	3.91	3.38	2.35	2.61	1.93	1.07	0.51

자료: KOTIS.

-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에 주로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광물성 연료, 철강, 가정용 전자제품, 비철금속 등을 수출하고,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광물성 연료, 정밀화학 및 석유화학제품,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등을 싱가포르로부터 수입함으로써 교역구조가 중첩되고 상당히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東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때 양국간 직접투자가 활발한 양상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세계경제의 침체 및 전세계 IT 산업의 부진 등으로 양국간 투자가 다소 침체되고 있는 상황임.

<표 2> 한국의 對싱가포르 및 싱가포르의 對한국 투자현황(신고수리기준)
(단위: 건, 백만 달러)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1~8	누 계
對싱가포르 투자 건 수	8	16	16	3	10	19	15	9	161
금 액	28.6	75.5	57.9	291.0	78.3	215.7	28.4	27.5	845.3
對한국 투자 건 수	19	16	17	26	46	82	58	29	380
금 액	65.4	46.6	45.4	1,183.8	414.1	304.2	189.6	126.4	2,474.5

자료 : 산업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 우리나라의 對싱가포르 투자는 싱가포르의 중계무역항을 활용하기 위한 무역업, 발달된 전자산업을 활용하기 위한 제조업, 부동산 및 서비스업 등에 집중되어 있음.
- 반면, 東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활발한 싱가포르의 對한국 투자는 제지 및 목재, 무역업, 서비스업 등에 집중되고 있음.

III. 한·싱가포르의 FTA 체결 시 예상효과 분석

1. 무역 부문에 대한 영향

- 먼저 싱가포르의 인구, 내수시장의 규모, 관세를 포함한 개방적 통상시스템, 산업구조상의 경쟁관계 등으로 볼 때, 양국간 FTA로 우리나라의 대싱가포르 공산품 수출을 급격히 확대시킬 가능성은 낮음.
- 싱가포르의 인구는 2001년 현재 약 400만명 수준이며, GDP는 826억 달러로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약 1/4 수준임.
- 싱가포르는 자유무역을 추구함에 따라 알콜성 음료류 4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걸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한편, 싱가포르도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을 확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싱가포르 총 수출의 40~50%가 재수출(re-exports)이고, 석유화학과 일부 전자품목을 제외하면 싱가포르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품목이 많지 않기 때문임.
 - 이러한 이유로 싱가포르는 역내부가가치 비율이 낮은 “느슨한” 형태의 원산지 규정을 희망할 수 있음.
- 싱가포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특화하는 대신, 농산물은 주로 수입하고 있으므로 양국간 FTA가 체결되더라도 싱가포르의 농산물이 국내로 수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낮음. 다만 우회수출의 가능성은 있으나, 엄격한 원산지 규정으로 차단이 가능함.

2. 서비스 및 투자부문 효과

- 서비스업의 경우 싱가포르의 금융, 운송, 통신 및 상업서비스가 우리나라보다 발달되어 있어 양국간 FTA가 특혜적 시장접근을 부여할 경우 싱가포르의 對한국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아울러 동남아 금융, 운송, 통신의 허브인 싱가포르로의 우리 투자가들의 전략적 진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한국의 對싱가포르 투자는 8.5억 달러(누계), 싱가포르의 對韓투자는 24.7억 달러(누계)임.
- 양국간 FTA로 제3국의 對한국 투자 증가도 기대해 볼 수 있음.
 - 싱가포르는 아시아지역에서 다국적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입지를 갖추고 있어 FTA가 체결되더라도 단기적으로 싱가포르 주재 다국적 기업들의 급격한 對韓 투자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우나, 협정의 내용에 따라 이들의 대한국 진출이 용이해짐으로써 한국으로서는 투자 유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양국간 FTA에서 한국의 외국인 투자환경이 개선되면, 다국적기업, 금융기관의 대한국 투자 및 지역본부 설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임.

□ 금융서비스 측면에서도 싱가포르는 세계 4위의 외환시장을 보유, 국제금융센터로서 아시아 지역에서 독보적 위치를 이미 구축하고 있으며, FTA를 통한 금융서비스의 진전은 싱가포르 소재 금융기관의 對한국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가능성이 있음.

- 현재 국제경쟁력이 약한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싱가포르의 선진금융기법을 습득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고, 또 싱가포르와의 서비스분야 교류 확대를 통한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됨.

IV. 고려사항

□ 산·관·학 전문가그룹을 통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내외 정치적 및 전략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싱가포르와의 FTA는 양국간 투자 확대, 동남아 시장 진출 기반강화, 화교 경제권과의 연계 수립 등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동남아 무역·투자 진출의 교두보로서의 싱가포르가 지니는 장기적·전략적인 장점을 고려해야 하며, 상품, 투자, 서비스, 인력, 기술, 정보 등에 있어 교류확대와 선진 개방경험 습득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동남아 국가중 태국과의 FTA는 공동연구를 종료하면서도, 칠레와의 협상 타결이 우선이라는 점을 들어 그동안 우리나라가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는 점에서, 싱가포르와의 FTA 추진을 계기로 태국과의 FTA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싱가포르와의 FTA 추진을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및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과 연계시키는 전략적 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중국과 일본은 아세안과의 FTA를 급속하게 진행시키면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임.